

Schwartz와 Bilsky의 보편적 가치구조 이론에 대한 방법적 비판 : SSA의 적용

조 남 국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근래에 Schwartz와 Bilsky(1987, 1990)는 가치관 연구에 대한 논문에서 보편적 가치구조의 이론을 지향하는 논리를 전개한 바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그들이 제시한 가치의 보편적 구조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Schwartz와 Bilsky가 가치구조들의 비교에 있어서 몇가지 가치영역들간의 개별적인 관계들에만 국한시키고, 전체 가치영역들간의 복합적인 배열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에 비판의 초점을 두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 가치영역들이 상이하게 인접되고 있는 3개의 가설적인 가치구조들을 설정하고, 그들의 거리행렬들을 SSA에 의하여 찾은 후, Procrustes 회전방법으로 유사도를 결정하였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Schwartz와 Bilsky(1987)가 제시했던 독일과 이스라엘의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이렇게 가치영역들의 인접유형만으로 비교된 가치구조들의 유사도는 가치영역들내의 세부적인 각 가치 요소들이 함께 고려될 때 더욱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Schwartz와 Bilsky(1987, 1990)의 논문에서 제시되었던 7개국 자료, 즉 이스라엘, 독일, 호주, 홍콩, 미국, 스페인 및 핀랜드의 가치구조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가치영역들의 인접유형에만 근거한 가치구조들을 재구성하였다. 여기에 한국 자료를 포함하여 총 8개국의 가치구조들을 비교한 결과는 Schwartz와 Bilsky의 주장을 반박하기에 충분하였다. 8개국 자료가 비록 가치영역들의 인접유형만을 고려하여 재구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로부터 획득된 거리행렬을 SSA로 분석한 결과는 가치구조의 보편성보다는 문화 특정한 접근을 더 지지하는 것이었다.

Rokeach(1973)가 가치개념을 도구적 및 궁극적 가치(instrumental and terminal value)로 구분한 이래, 그의 측정도구는 가치관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년간에 걸쳐 새로운 시각과 분석 방법에 의한 가치관 연구가 Schwartz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Schwartz와 Bilsky, 1987, 1990; Schwartz, 1990, 1991). 그의 연구는 최초 Rokeach의 측정도구로부터 출발하였다가, 근래에 와서는 도구적 및 궁극적 가치의 내용들을 더 추가시킴으로서 확대된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응답자 반응은 Likert 유형의 scale로 측정되고 있다. 그리고 수집 자료들은 모두 Multidimensional Scaling(MDS)의 한 방법인 Smallest Space Analysis(SSA)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가치관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이 Rokeach가 주로 사용하였던 단순한 1차원적 접근방식

에서부터 다차원적 분석방법으로 전환되는 일대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료분석을 위한 접근방법의 차이는 Rokeach와 Schwartz의 서로 다른 연구관심에서 연유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분석 모델로서 다차원적인 접근으로의 전환은 앞으로의 가치관 연구에 커다란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Schwartz와 Bilsky(1987, 1990)는 그간 여러 국가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들로부터 도출된 각 국가별 가치관 구조들을 다시 비교문화적 심리학(cross-cultural psychology)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SSA를 통하여 파악된 여러 국가의 가치구조들이 비교되는 과정에서 그 적용 방법과 결과 제시 때문에 눈에 띄게 표출되는 문제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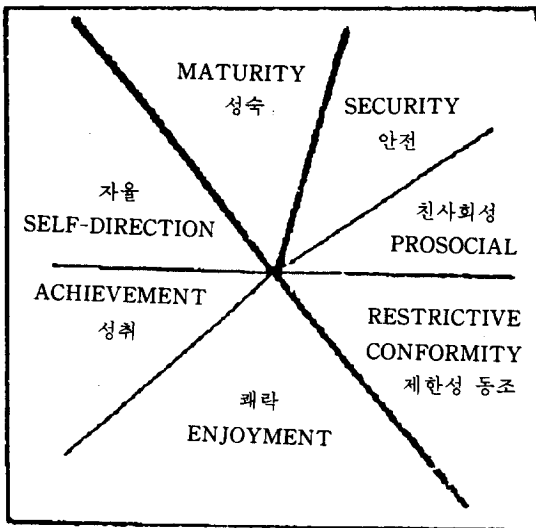
었다. 그것은, Schwartz와 Bilsky(1990)의 "Towards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라는 논문 제목 그 자체가 시사하듯이,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가치들의 보편적 내용과 구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Schwartz와 Bilsky(1987, 1990)의 연구 절차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측정 도구의 구성단계로서, 그들은 우선 추구가치들(values)이 분류될 수 있는 8가지 영역들(domains)을 도출한 후, 그 각 가치영역들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 가치들을 선정하였다. 두번째는, 그러한 가치들로 구성된 질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SSA로 분석하고 가치의 구조화 형태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때는 그 가치들이, Schwartz와 Bilsky가 예측하듯이, 실제로 8개의 가치영역들로 분류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Schwartz와 Bilsky(1987, 1990)는 각 국가간에 공통적으로 확인된 7개의 가치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세번째는, 이렇게 여러 국가들에서 개별적으로 확인된 가치영역들의 결합하는 유형들이 동일한 구조의 가치관 형성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판단 단계이다. Schwartz와 Bilsky(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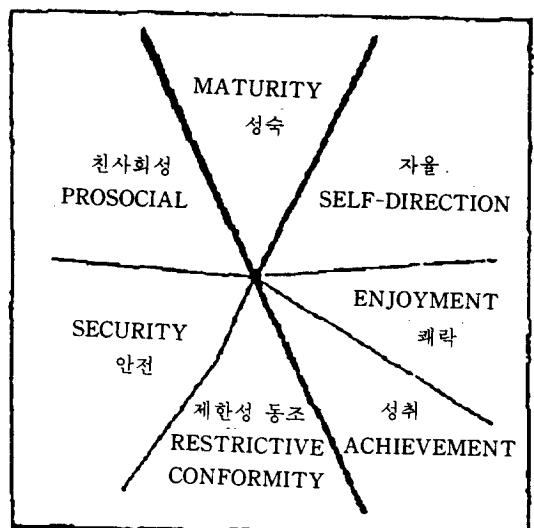
는 그들 나름대로 설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여러 국가의 가치관 구조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커다란 문화권간의 차이 가능성에 대한 제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서구의 여러 국가 및 문화를 초월하는 동일한 가치관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다(p. 886의 표와 P.884-889의 논문 내용 참고).

Schwartz와 Bilsky 연구의 문제점

Schwartz와 Bilsky(1990)는,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추구 가치들의 보편적 내용과 구조(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를 이론화시킬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가치관 연구에서 SSA를 도입하여 다차원적인 분석 가능성을 제시한 그들의 노력은 물론 크게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 결과에는 아직도 몇가지 더 보완되든가 또는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다. 즉, ①각 가치영역들(domains)에 포함되는 추구가치들의 내용 및 요소에 대한 정의에서 여러 논문들 간의 일관성 부족, ②기존의 알려진 여러 논문에서 도출되는 기본 가치영역들의 수의 가변성, ③기본 7개 가치영역들에 포함되는 가치내용들의 국가간 불일치, ④구분되는 주요 가치영역들의 수와 명칭이 실사 여러 나라에 걸쳐 일치



이스라엘 (a)



독일 (b)

그림 1. Schwartz와 Bilsky(1990, p.880)가 제시한 이스라엘(a)과 독일(b) 표집들의 가치구조(7개 가치영역들의 인접 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영역들의 상호 인정하는 유형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들 국가간의 가치관 구조가 서로 다른 것임을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들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는 시각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Schwartz와 Bilsky 연구의 기초를 이루는 각 가치영역들(domains)에 대한 정의는, 연구가 거듭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계속 수정·대치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 가치영역들을 구성해야 하는 가치들(values)이 경험적 자료에서 일관성있게 묶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Schwartz와 Bilsky(1987, 1990), 그리고 Schwartz(1990, 1991)의 연구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추가치들은 연구에 따라서 혹은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각 영역별로 그 가치들이 묶이는 유형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은 그 원인의 일부분을 측정도구와 분석방법에서도 찾을 수 있고, 또 Schwartz의 연구가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엽적인 문제로 보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Schwartz와 Bilsky(1987, 1990)의 연구에서 보다 더 비중이 큰 문제는, 가치관 구조들을 비교할 때, 상호 인정하는 유형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가치영역들간의 관계가 다루어지는 방법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가치영역들의 분류와 그 내용들의 구성에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각 가치영역들의 세부 구성 내용은 접어둔 채, 그 미약한 기반위에서 명명된 가치영역들간의 구성관계만으로 단순화시켜 여러 국가들의 가치 구조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그 또한 실용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Schwartz와 Bilsky(1990)의 연구에서 결국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문제는 가치관의 구조 비교시 가치영역들의 상호 인정하는 유형이 서로 다를 때에 그 유형의 차이가 무시되는 분석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그림 1 참고).

동일 구조로 설명될 수 없는 가치구조들의 예

지금까지 Schwartz의 연구에서 그렇게 이상적인 경우는 없었지만, 각 가치영역들(domains)의 내용, 수 및 그 영역들에 포함되는 추가치들의 구분에서 각 국가간의 자료들이 모두 정확히 일치하였다고 가정해 보

자. 설령 그와 같은 이상적인 결과가 나타났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영역들이 서로 다르게 인정한다는 또 하나의 정보가 추가되면, 그것은 각 국가간에 나타나고 있는 가치 체계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Schwartz와 Bilsky(1987)의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가치관 구조에서 “성숙(maturity)”이라는 가치영역에 대한 연상(association)이 양 옆으로 “자율(self-direction)”과 “안전(security)”의 가치영역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가치영역들이 인정하는 유형은 그 가치영역들간의 심리적 거리의 표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Ahrens, 1974; Borg, 1981; 조, 1994 참고), 그에 의하면 앞의 인정 유형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즉, 이스라엘의 가치관 구조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 및 가정의 안전을 추구하는 가치영역들이 다른 어떤 가치영역들보다 더 성숙된 가치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독일 자료에서는 성숙(maturity)이라는 가치영역에 “자율(self-direction)”과 “친사회성(prosocial)”이 양 옆으로 인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독일의 가치관 구조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더불어, 사회에 봉사하는 친사회적 가치영역이 다른 어떤 가치영역들보다 성숙된 가치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Schwartz와 Bilsky(1990)의 연구에서 제시된 또 다른 하나의 예로서, 홍콩 자료를 보면, 성숙(maturity)이라는 가치영역에 양 옆으로 “자율(self-direction)”과 “제한성향의 동조(restrictive conformity)”가 인정되어 있다(그림 6 중 홍콩자료 참고). 이 의미는, 홍콩의 가치관 구조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아울러, 개인에게는 비록 제한이 가해지더라도 집단 및 사회의 규범에 동조하는 가치영역이 다른 어떤 가치영역들보다 더 성숙된 가치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3가지 예에서, 어느 사회나 자율(self-direction)이라는 가치영역을 성숙된 가치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인정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가치영역만은 위의 3 나라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가치영역은 각각 그 해당 국가의 가치구조 특성, 즉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입장, 독일의 사회 중심적인 가치추구 경향, 그리고 홍콩의 동양적인 가치요소들을 잘 반영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측된 관계	관찰된 관계						
	홍콩	호주	미국	스페인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조화관계 (compatibilities)							
안전, 친사회성 및							
제한성 동조	Y	Y	Y	Y	Y	Y	Y
성취와 쾌락	Y	Y	Y	Y	Y	Y	Y
성숙과 자율	Y	Y	Y	Y	Y	Y	Y
갈등관계 (conflicts)							
자율 대 제한성 동조	?	Y	Y	Y	Y	Y	Y
친사회성 대 성취	Y	Y	Y	Y	Y	Y	Y
쾌락 대 친사회성	?	Y	?	Y	Y	Y	?
성취 대 안전	?	?	Y	Y	Y	?	Y
제한성 동조 대 성숙	N	Y	Y	Y	Y	Y	Y

Y=확인된 관계 : 조화관계에서는 가치영역들이 인접하는 경우를, 갈등관계에서는 가치영역들이 다른 2개의 가치영역들에 의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정의한 것임

?=보류 관계 : 가치영역들이 다른 1개의 가치영역에 의하여 분리된 경우

N=기각된 관계 : 가치영역들이 인접하는 경우

그런데 이런 예들은 몇몇 국가간에 가치구조들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서 단순히 성숙(maturity)이라는 가치영역만을 중심으로 본 조건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Schwartz와 Bilsky(1987, 1990)가 제시했던 7개 가치영역들간의 관계들이 모두 결합된다면, 각 국가간 가치구조의 차이는 당연히 훨씬 더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러한 차이의 정도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비교 기준이 필요한데, 바로 이 부분에서 Schwartz와 Bilsky(1987, 1990)의 논리 전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이해되어야 하는 가치구조가 그들의 비교 기준으로는 오히려 동일한 구조들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의 시작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Schwartz와 Bilsky가 추구하듯이, 추구가치들의 내용과 그들로 구성되는 가치 구조들이 여러 국가간에 다 같이 함께 보편적(universal)인 성격을 띠 수는 없음을 방법적으로 입증해 보이려고 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필자는 크게 3가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분석은, 가치영역들(domains)의 인접유형이 바뀔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치 구조들의 상이성 정도를 정밀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Schwar-

tz와 Bilsky(1987)가 그들의 논문에서 거의 동일한 구조로 제시하고 있는 독일 대학생과 이스라엘 교사 간의 가치영역들이 이루는 가치구조(value structure)의 유사성 정도를 산출해 보이는 것이다. 셋째는, Schwartz와 Bilsky(1990)의 논문에서 제시된 5개국의 자료에 3개국 자료를 더 추가시켜, 이들 국가간 가치구조의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dissimilarity)을 확인한 후에, 가치구조의 유사도에 따라 각 국가들이 차지하게 되는 좌표들을 찾는 것이다. 이 분석들은 모두 SSA 방법을 통하여 Schwartz와 Bilsky(1987, 1990)가 제시한 논문들에서부터 재구성한 자료들로 이루어 졌으며, 가치구조들의 유사성 정도의 확인을 위해서는 Procrustes 회전방법(Borg, 1981)이 적용되었다.

가치영역들의 인접 유형과 가치구조

Schwartz와 Bilsky(1990)는 서구 6개국에 홍콩을 포함한 총 7개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가치영역들(domains)이 형성하는 가치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 바 있다.¹¹⁾ 그들은 그 가치영역들간의 인접 관계를 “조화와 갈등”(compatibilities and conflicts)으로

¹¹⁾ 7개국 : 홍콩, 호주, 미국, 스페인,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명명한 기준에 의해서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이 “조화(compatibilities)”라고 명명한 관계는 가치영역들이 상호 인정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 또 가치영역들의 “갈등(conflicts)” 관계라고 정의한 것은 2개의 선정된 가치영역들 사이에 최소한 2개의 다른 가치영역들이 끼어 있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표 1 참고).

그 중에서 먼저 “조화”관계에 관한 것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Schwartz와 Bilsky가 설정한 3가짜 관계에서 각 나라의 자료들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갈등”에 해당되는 가치영역들간의 관계에서는 그들 기준에 따르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들을 보이는 듯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그 상이한 부분의 내용은 7개의 서구 국가 중 4개국의 자료가 예측된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데 반하여, 홍콩 자료만은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그들이 내린 결론은, 홍콩의 독특한 가치구조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가치체계가 비록 보편적(universal)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서구 사회 6개국의 가치체계는 동일하다는 것이다(Schwartz와 Bilsky, 1990, p.889 참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그들은 유교, 불교, 이슬람 등 커다란 문화권 간에 가치구조들이 “조화와 갈등”의 관점에서 차이가 실제로 있는지, 혹은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그들이 내린 이러한 결론이 내포하는 점은, 큰 문화권들의 가치체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기는 하나, 최소한 한 문화권내에서의 가치체계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Schwartz와 Bilsky(1990)가 언급하는 “조화와 갈등”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의 표상(representation)을

추구하는 SSA 방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Borg, 1981; 조, 1994 참고). 왜냐하면, 그들의 비교기준은 선정된 2개의 가치영역들 사이에 건 다른 가치영역들의 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너무 도식적이며, 각 가치영역들 간에 나타나고 있는 거리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이 비교한 가치영역들의 관계는 여러 국가에서 확인되었다는 7개 가치영역들(domains)간의 전체적인 인정유형을 고려함이 없이 부분적인 관계들의 개별적 점점에만 국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Schwartz와 Bilsky(1990)가 제시했던 비교기준과 분석 결과는 전체적인 가치영역들의 구조들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의 기준으로는 각 나라의 가치구조들을 비교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우리에게서 여러 나라의 가치 구조들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각 가치영역들간의 다양한 인정유형에 의한 전체적인 구조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바로 그 문제는 Procrustes 회전방법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다(Borg, 1981; Cliff, 1987; Schenemann, 1966).

Schwartz와 Bilsky가 그들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치영역들간의 실제적인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그림 2에서와 같이 편의상 6개의 가치영역들이 상호 인정하고 있는 3개의 상이한 가설적 가치구조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이것은 A에서 F까지 6개의 가상의 가치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구조는 A, B, C의 위치가 고정되어 동일한 반면에, D, E, F의 위치는 서로 달라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각 가치영역들의 중심점들간의 간격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그 점들간의 거리로부터 거리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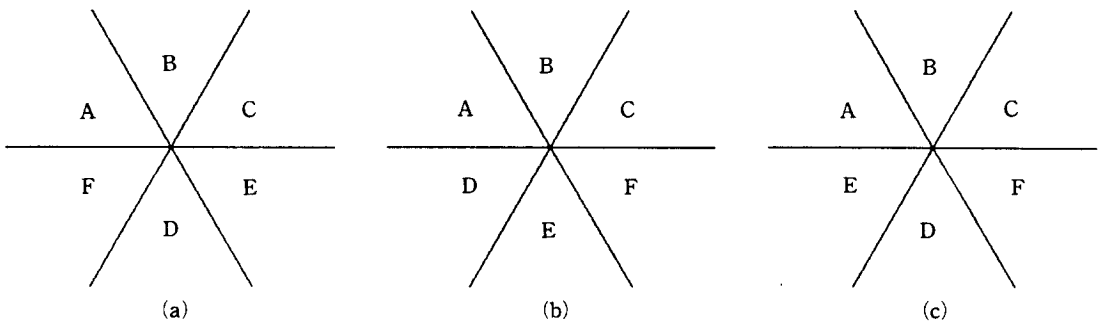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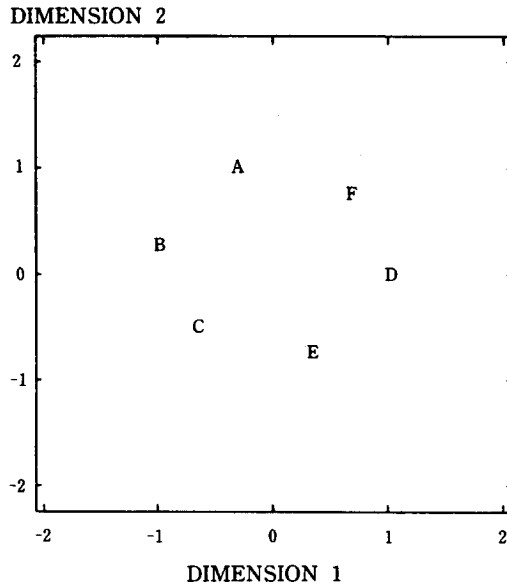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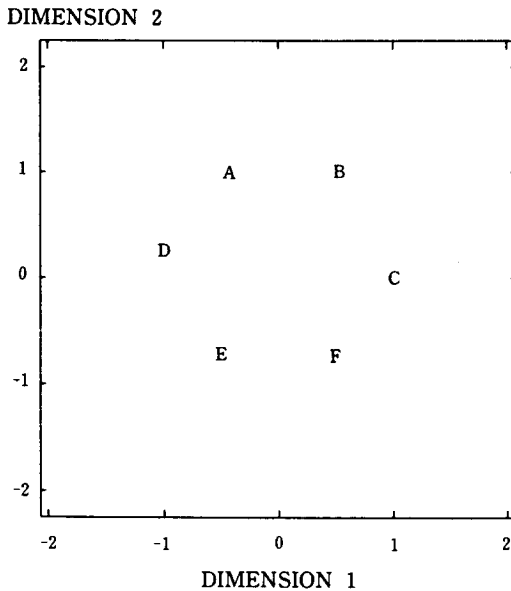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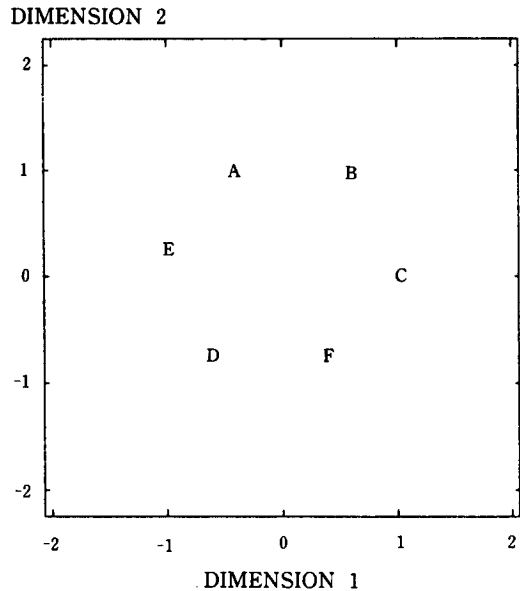
그림 2. 가치영역들의 인정 유형이 D, E, F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3가지 가설적 유형의 가치구조들



(a)



(b)



(c)

그림 3. SSA를 통하여 그림 2에 제시된 가치영역들의 3가지 인접 유형을 재구성한 가치구조들

렬(distance matrix)을 만들어 MDS 분석을 실시하면 그림 3과 같이 각 가치영역들간의 관계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MDS에서 허용되는 자료전환(transformation), 즉 반사(reflection)와 회전(rotation)을 고려한다면(Borg, 1981), 그림 3은 그

림 2를 정확히 재구성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program은 SYSTAT의 MDS 중에서 Guttman 방법이며(Wilkinson, 1987), 그 분석 결과는 Schwartz와 Bilsky가 그들의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SSA와 동일하다.

Procrutes 회전방법은 그림 3으로부터 획득되는 좌표를 이용하여 그 차원 구조들(dimensional structures)의 유사성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분석결과는 그림 2의 (a)와 (b)의 가치구조간 상관계수가 $r=.60$, (b)와 (c)간의 상관계수가 $r=.83$, (a)와 (c)의 상관계수가 $r=.71$ 로 각각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각 가치 구조들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고정된 위치의 가치영역 A, B, C에 대해서 가치영역 D, E, F의 변화하는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복합성과 가치구조 상호간의 유사성 정도를 잘 반영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b)와 (c)에서는 가치영역 D와 E만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반하여, 상호 가장 다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a)와 (b)의 경우에는 가치영역 D, E, F의 위치가 모두 바뀌어 있다. 또 그 중간 정도의 구조 차이를 보이고 있는 (a)와 (c)의 경우에는 E와 F의 2 가치영역들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지만, (b)와 (c)의 경우에 비해서 더 큰 가치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치구조의 유사도 : 독일과 이스라엘

최초의 가치구조 연구에서 Schwartz와 Bilsky (1987)는 독일 대학생과 이스라엘 교사간의 가치 구조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분석 결과가 그들의 예측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일한 가치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p.557 참고).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각 가치영역들(domains)의 인접하는 유형에 따른 유사성의 정도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구조는 결코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 가치영역들의 배치 구조가 정확히 일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각 가치영역 내에서 여러 가치 요소(value element)들이 상호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거리관계들은 가치구조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출처(source)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치영역들간의 인접 유형을 넘어서서 각 가치영역 내의 가치 요소들이 구성하는 관계들까지를 고려한다면, 진정 동일한 가치 구조를 나타내어 보이는 국가들을 찾아 내기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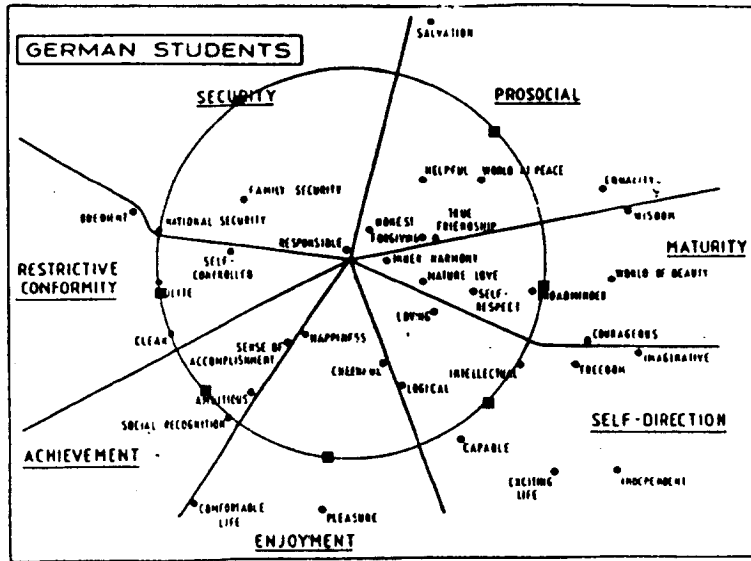
실제로 이러한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필자는 Schwartz와 Bilsky가 1987년 논문에서 제시한 독일 대학생과 이스라엘 교사의 가치 구조들로부터 그림 4에서와 같이 각 가치영역들의 중심점을 7개씩 찾은 후,

그들간의 거리 행렬(distance matrix)로부터 자료들을 재구성하였다. 그 다음, 그렇게 가치영역들간의 인접유형만 고려하여 재구성한 2개의 가치구조들을 Procrutes 회전에 의하여 비교한 결과는 $r=.68$ 이었다. 이 결과는 각 가치영역내의 여러 가치 요소들간의 거리관계가 고려될 때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자는 추가적으로 1987년의 Schwartz와 Bilsky 자료에서 각 가치영역들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가치 요소들 중 22개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그 다음에는, 그 선정된 가치 요소들간의 거리 행렬들(distance matrices)로부터 Schwartz와 Bilsky의 분석 결과들을 그림 5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그 다음, 그 재구성된 자료로부터 획득된 좌표들을 활용하여 Procrutes 회전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로 산출된 상관계수는 $r=.50$ 으로 낮아졌다. 여기에서 만약 Schwartz와 Bilsky(1987)가 제시했던 36개의 가치요소들간의 거리가 모두 재구성되었었다라면, 그 분석 결과는 틀림없이 더 낮은 상관계수로 나타났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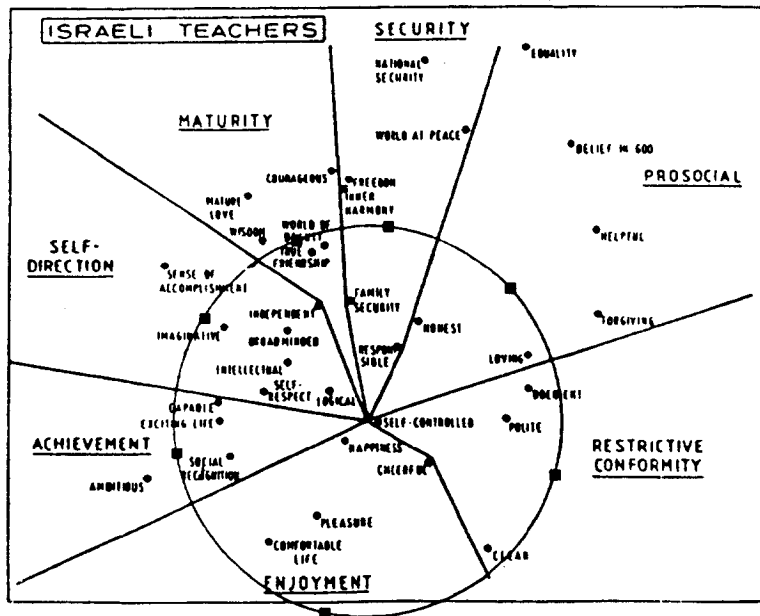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이처럼 가치영역들의 중심점들만 기초한 개략적인 가치구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나아가 각 가치영역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루고 있는 가치 요소들간의 관계를 많이 고려하면 할수록 그 가치구조들간의 유사도는 점점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비교문화적 연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다양한 국가, 민족, 사회 및 문화간의 차이를 가늠케 해 주는 지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고, 그 차이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비교문화적 가치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8개국 가치구조들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차원

Schwartz와 Bilsky가 1987년의 논문에서 제시한 독일과 이스라엘의 2개국 자료와 1990년에 제시한 5개국의 자료들 중 홍콩을 제외한 4개국 자료들은 모두 “추가치들의 보편적 내용과 구조(universal contents and structure of values)”를 확인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Procrutes 회전방법을 적용할 경우, 그들간의 유사성(similarity) 정도



(a)



(b)

그림 4. Schwartz와 Bilsky(1987, p.557-558)가 제시한 독일(a)과 이스라엘(b) 표집들의 가치구조(이 자료는 가치 요소들의 거리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2개의 원들은 각 가치영역들의 중심의 중심점을 찾기 위하여 필자가 그려 넣은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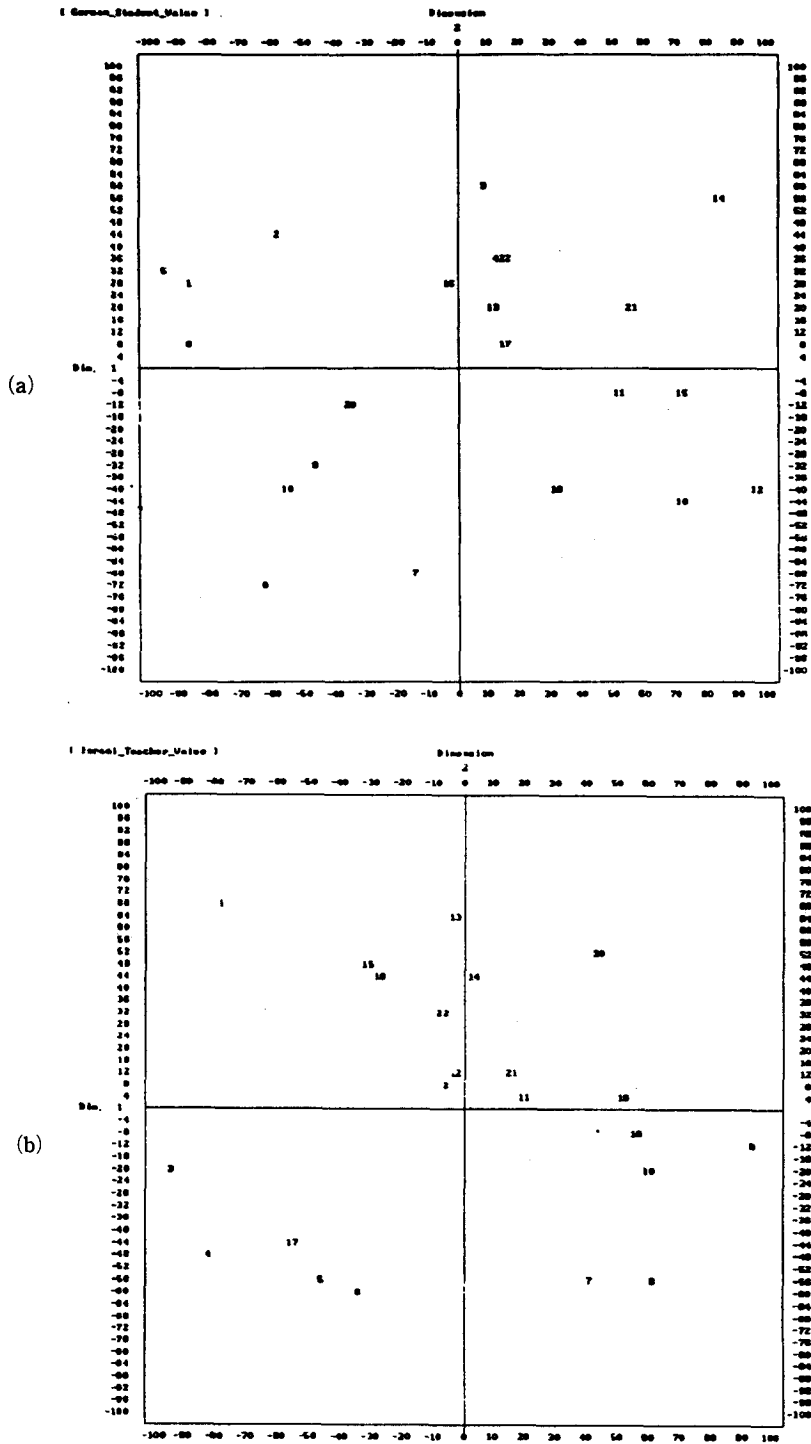


그림 5. 그림 4의 독일(a)과 이스라엘(b) 자료에서 임의로 선정된 각 22개의 가치요소들간의 재구성된 거리 관계(SSA에서 허용된 자료 전환들을 고려하면, 재구성 결과는 그림 5의 구조들과 동일함)

는 보다 정확히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국가들의 가치구조들 상호간의 유사도로부터 획득된 유사도 행렬(similarity matrix)은 거리 행렬(distance matrix)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것은 다시 SSA의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공간의 의미는, "가치구조의 상호 유사성"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각 나라들간의 거리관계가 표상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일종의 meta 구조(structure)를 찾는 것으로서, 가치구조들간의 유사성을 다시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분석 결과는 각 국가들간에 가치구조들의 차이가 어떤 차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분석을 위하여, 필자는 Schwartz와 Bilsky가 제시하고 있는 그림 4와 그림 6의 7개국 자료에 1990년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하여 분석한 자료를 추가하였다. 이 한국 자료는 Schwartz와 Bilsky가 근래에 사용하고 있는 가치척도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SSA로 분석한 결과이다. 다만, Schwartz와 Bilsky(1987, 1990)가 제시하고 있는 가

치영역의 분류에 최대한으로 유사한 결과를 찾아내기 위해서 한국자료에서는 SSA의 5차원 해(解)를 필요로 했다. 이 때 alienation 계수는 4차원 해(解)의 경우 .154이었다가 5차원 해(解)에서 .122로 떨어졌다. 이는 Schwartz와 Bilsky가 그들의 연구에서 설정했던 기준인 <.13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또, 한국자료에서는 가치영역으로서 "사회 권력(social power)"이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Schwartz와 Bilsky가 제시한 다른 7개국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가치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기 위해서 고려되는 가치영역들로부터 탈락시키기로 하였다.

Schwartz와 Bilsky(1987, 1990)가 제시하는 7개국과 한국의 자료를 추가하여 총 8개국의 자료들에서 다시 거리 행렬(distance matrix)의 구성, SSA 및 Procrustes 회전방법과 같은 일련의 분석 과정들을 통하여 획득된 유사도 행렬(similarity matrix)은 표 2와 같다. 그리고 이자료로부터 다시 SSA에 의하여 분석된 결과는 그림 7에 제시하였다. 참고로 여러가지 해(解)들의 alienation 계수들을 제시하면, 1, 2 및 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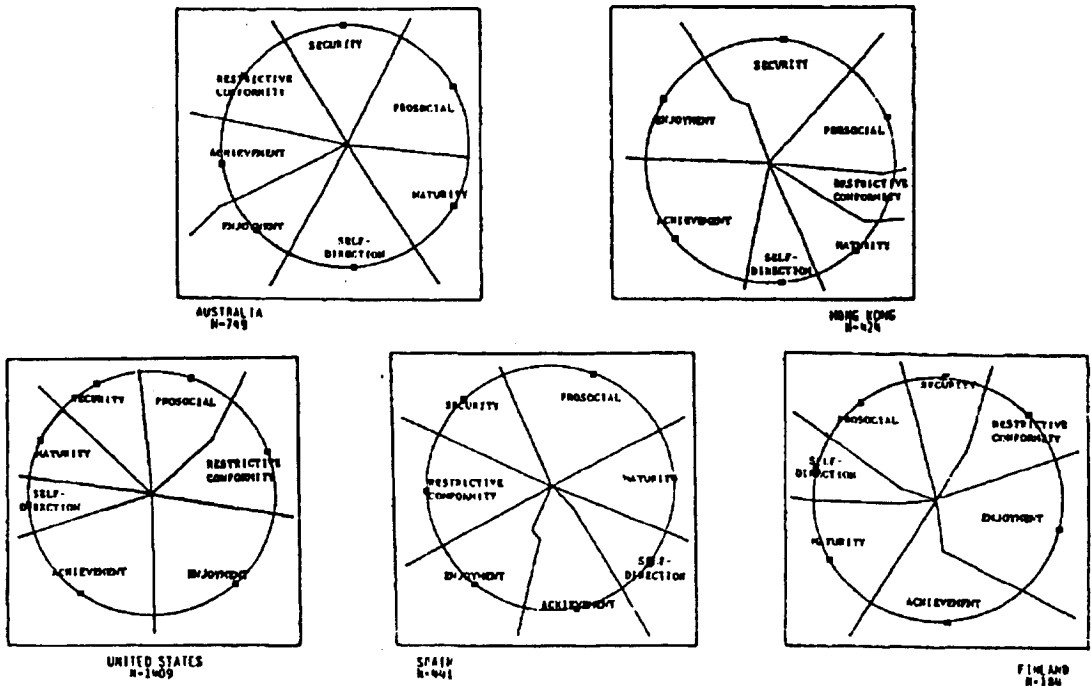


그림 6. Schwartz와 Bilsky(1990, p.885)가 제시한 5개국의 가치구조들(맨위 왼쪽에서부터 호주, 홍콩, 미국, 스페인 및 핀랜드의 자료이며, 5개의 원들은 각 가치영역들의 중심점을 찾기 위하여 필자가 그려 넣은 것임)

표 2. 8개국 가치구조간의 유사도 행렬 (7개 가치영역들의 중심점들에 의해서만 계산된 것임)

	1	2	3	4	5	6	7	8
1. 독 일	1.00							
2. 미 국	.68	1.00						
3. 호 주	.99	.72	1.00					
4. 스 페 인	.90	.84	.91	1.00				
5. 핀 랜 드	.77	.85	.77	.90	1.00			
6. 이스라엘	.68	.99	.73	.84	.83	1.00		
7. 홍콩	.57	.64	.62	.74	.74	.63	1.00	
8. 한 국	.75	.91	.78	.86	.84	.94	.6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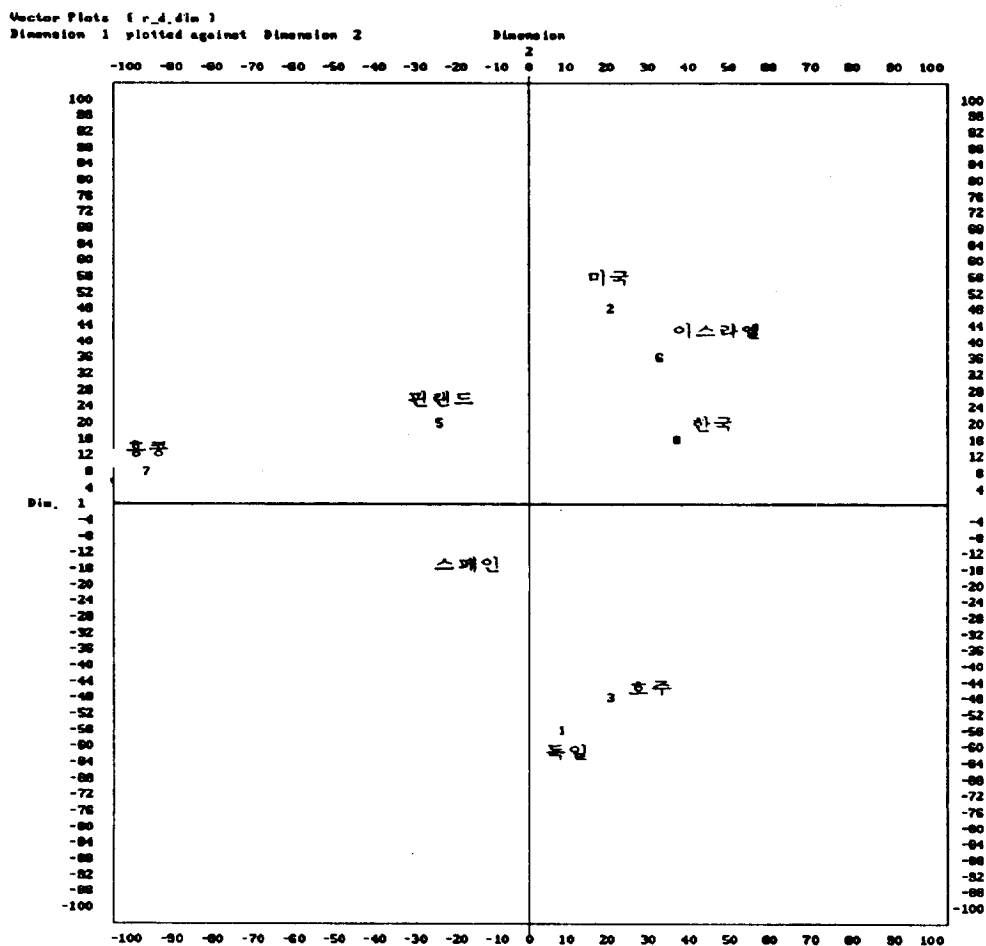


그림 7. 표 2에 제시된 8개국 가치구조들의 유사도 행렬을 SSA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원의 경우에 각각 .52, .07 및 .00으로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서 3차원의 해(解)가 가장 정확한 표상(representation)을 나타내는 것이겠지만, 적절한 모델 부합(model fitting)과 결과 제시의 간편성이라는 관점에서 2차원의 해(解)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각 가치영역들(domains)의 중심점만을 고려하여 그 영역들의 인접 유형만을 취급한 개략적인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 두고자 한다. 그림 7에서, 수직 차원은 Europe과 America를 대표해서 각각 독일과 미국을 양극으로 한 가치구조의 축을 나타내고 있다. 그 사이에 동양의 가치구조로서 홍콩과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치구조를 구분하는 차원의 양극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 동양 대 서양이 아니라, Europe vs America라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게 여겨진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홍콩이 순수하게 동양적인 면모만 지니고 있지 않으며, 한국 또한 급격한 현대화의 과정에서 있었던 서양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때문에, 이 두 나라가 동양을 대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만으로 가치구조의 유사성 문제에서 “동양 대 서양”보다 “Europe vs America”의 차원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분석에서 더 많은 동양의 분석자료들이 추가되어 비교될 때, 보다 더 확실한 인식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의 결과를 볼 때, 수직 차원에서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스라엘과 한국의 가치구조가 미국쪽으로 지향되어 있고, 핀랜드는 동양권의 가치구조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수평 차원은 홍콩과 나머지 국가들을 구분해 주는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측컨대 이는 동서양의 문화가 함께 뒤엉켜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로서의 홍콩의 위치를 선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 같다.

이상은 가치영역들의 중심점들에 근거를 둔 가치구조들의 비교 결과를 제시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영역의 중심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 각 가치영역의 세부적인 가치요소들 간의 관계까지 고려된다면, 결국 이 방향의 모든 연구 결과들은 Schwartz와 Bilsky가 지향하는 “추구가치들의 보편적 내용과 구조(universal contents and structure of values)”를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비교문화적 연구

에서의 묘미를 다양한 문화 및 사회의 공통성에서 찾기는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차이의 내용과 성격의 구체적인 이해에서 찾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결론과 전망

지금까지 필자는 각 국가간의 가치구조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여러 가치영역들간의 전체적인 인접 유형들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것은 Schwartz와 Bilsky(1990)가 제시하고 있는 단편적인 비교 기준에 비하면 훨씬 더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된 이러한 분석 결과도 단순히 그 결과 자체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일정한 한계를 띠게 된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들이 Schwartz와 Bilsky(1987, 1990)가 2차원의 평면상에 제시했던 자료들로부터 재구성된 것이었던 만큼, 그 제한된 조건하에서의 가치구조들끼리만 비교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처음부터 Schwartz와 Bilsky(1987, 1990)가 SSA를 통하여 각 국가별로 추출하였던 4-5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가치구조들을 모두 동시에 고려하여 Procrustes 회전을 시킬 수 있었다면, 그 결과로서 우리는 보다 더 정교하게 여러 국가간 가치구조의 유사도를 산출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본 논문을 통하여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수치적 결과 그 자체보다도 가치구조들의 비교를 위한 일반적 접근 방법의 제시였다.

이런 일련의 분석들을 통하여 결국 필자가 결론 지으려고 하는 것은, 가치관 연구에서 보편적 가치구조(universal structure)의 추구는 무리라는 것이다. 각 국가들간의 가치구조를 비교하기 위하여 상호 비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치영역들을 정의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가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보편적 가치구조의 지향이 가치관 연구의 핵심적 기초가 된다면, 그 연구에서는 바로 그것이 논의의 한계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각 가치영역들의 상호 배열관계, 그리고 각 가치 요소들간의 거리관계는 여러 문화권 간에는 물론, 한 문화권 혹은 국가 내에서도 사회 계층간에 얼마든지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구조의 보편성 지향”은 가치관과 관련된 현상들에 대한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필자는 Schwartz와 Bilsky의 연구에서 각 국가, 민족, 사회 및 문화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근거로 도입된 기본 가치영역들(domains)의 결정에도 아직 더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그들이 지금까지 찾아낸 가치영역들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완벽”이란 서양적인 관점에서의 완벽이었지, 동양의 가치관에서 보면 그것은 아직도 미흡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양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자, 노자 및 장자의 사상이라든가, 동양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정적(情的)인 가치 요소들, 그리고 동양의 언어 표현 방식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섬세하게 구분되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가치 요소들이 단순한 몇개의 압축된, 서양적 가치 개념들로 모두 표현되고, 대체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쪽 문화권의 가치 개념들을 완벽하게 파악하였다는 것이 곧 다른 쪽 문화권의 가치 개념까지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서양의 척도로 동양을 측정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척도가 아무리 완벽했더라도 그 측정 결과를 가지고 동양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연구에서 앞으로 채택되어야 할 연구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첫째, 동서양에서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기본 가치 개념들이 모두 균형있게 망라될 수 있도록 기존 가치영역들의 수정, 확대 및 재정리를 함으로서 비교문화적 연구(cross-cultural study)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비교의 근거를 만든다.

둘째, 그 가치영역들(domains)로 구성되는 기본 차원들을 추출해 낼 수 있기 위해서, 이제까지 Schwartz와 Bilsky가 사용해 왔던 SSA의 분석 방법을 반복 적용한다. 그 귀결점은 동서양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일반적인 척도의 획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때 서양적인 가치와 동양적인 가치, 그리고 혼합된 가치들이 구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위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척도에 의하여,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가치 구조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비교에는 본 논문에서처럼 Procrustes 회전방법을 적용한다. 이 때, 각 국가별로 추출되는 가치구조의 차원들 전체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가치 구조의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의 정도를 찾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각 국가 및 문화들간에 부각되는 가치 구조의 차이들은 다시 SSA 분석에 의하여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차이들의 출처 확인 및 추가적인 정밀분석에 의하여 그 차이들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조남국(1994). Similarity scaling의 이해를 위한 MDS의 기초. 한국 심리학회의 1994년도 동계 연수회 발표.
- Ahrens, H.J. (1974). *Multidimensionale Skalierung: Methodik, Theorie und empirische Gültigkeit mit Anwendungen aus der differentiellen Psychologie und Sozialpsychologie*. Weinheim: Beltz.
- Borg, I. (1981). *Anwendungsorientierte Mutidimensionale Skalierung*. Berlin: Springer.
- Cliff, N. (1987). *Analyzing multivariate data*.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Publishers.
- Gebhardt, F. (1969). *Statistische Programme der GMD. Teil B: Einzelbeschreibungen*. St. Augustin: Gesellschaft für Mathematik und Datenverarbeitung MBH Bonn.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Schwartz, S.H., & Bilsky, W. (1987). Towards a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 Schwartz, S.H., & Bilsky, W. (1990). Towards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78-891.
- Schwartz, S.H. (1990).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19 countries. Unpublished manuscript.

Schwartz, S.H. (1991). Cultural dimensions of valu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national differences. Unpublished manuscript.

Schönemann, P.H. (1966). A generalized solution of the orthogonal Procrustes problem. *Psychometrika*, 31, 1-10.

Wilkinson, L. (1987). SYSTAT: *The system for statistics*. Evanston, IL: SYSTAT, Inc.

A Critical Review to the Theory of Universal Value Structure of Schwartz & Bilsky : An Application of SSA

Nam-Guk Cho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tends to re-examine Schwartz and Bilsky's theory of universal structure of human values. The main criticism is that they focused only on individual sets of domains and did not examine the overall arrangement patterns of the domains.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a simultaneous consideration of the entire relations among domains is essential to describe a value structure. Arrangement patterns of Australia, Hong Kong, the U.S., Spain, Finland, Israel, and Germany were reconstructed from Schwartz and Bilsky's figural presentations shown in their early articles. Including our own data on Korean sample, the eight arrangement patterns of domains were examined with Procrustes rotation method for their structural similarities. The similarity coefficients among the eight patterns varied widely, and were relatively low. It was concluded the eight patterns cannot be assumed to have been derived from one single value structure. An appeal was made for a culture-specific model of value structure.